



# 지역 소식

후기 성도 다자녀 가정을 찾아서 ①

## 우리, 가족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한국 땅의 후기 성도 다자녀 가정을 찾아 취재하고 그 기사를 연재한다.  
최소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이들 후기 성도 가정들은 늘 행복하고 사랑이 넘친다.



남상병 형제 부부와 자녀들. 나래, 현석, 현주, 현빈, 현찬.

**가장 기쁘고, 가장 힘들고, 그리하여 가장 가치 있는-남상병 형제 가족**

**남**상병 형제의 가족은 모두 여덟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곱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막내는 엄마인 조의경 자매의 뱃속에서 가족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장녀 나래부터 네 살 난 아들 현찬까지, 다섯 명이나 되는 자녀들은 요즘처럼 아이를 적게 낳는 세상에서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다. 자녀들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친구까지 '유별나게 애가 많은 나래네 가족'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낸다. 때로는 그 눈길 속에 안쓰러움도 깃들지만 대부분은 따뜻한 시선이 더 많다. 가끔씩은 현관문에 쇼팽백이 걸려 있기도 한다. 그 속에는 작아진 옷가지들이 들어 있다. 아이

많은 남 형제 가족을 위한 이웃들의 작은 배려이자 친절이다.

남상병 형제 가정에는 늘 웃음이 넘친다. 자녀가 많다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설령 그것이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말썹이라 해도 모든 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만큼 남 형제 가정에는 사랑과 여유가 가득하다. 다섯 명의 씩씩한 자녀들 때문에 늘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김장이라도 담그는 날에는 일곱 명의 가족이 일렬로 늘어서서 금세 배추를 옮겨버린다. 다섯 자녀들은 모두가 쾌활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을 청소하거나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의 규칙들은 철저히 지킨다. 남상병 형제와 조의경 자매는 자녀들에게 일찍감치 자립을 가르치고, 성실함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훈 또한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되는 것 먼저 하기'다.

그렇다면 남상병 형제와 조의경 자매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어떤 의미일까? 남상병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자녀들은 제게 게으름을 막아주는 원천이자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더 충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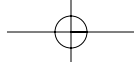
부족한 점이 많은 자신들에게 주님의 고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두 사람.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자녀들. 남상병 형제 가족은 천생 님은꼴이다. 남상병 형제는 이렇게 간증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은 지상에서의 시험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힘든 시험이기에 가장 가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윤석주 형제 부부와 자녀들. 성태, 현미, 미영, 미숙, 미림, 미옥, 미진, 미청, 영태.

**더 큰 책임과 더 큰 축복-윤석주 형제 가족**

**윤**석주 형제의 애초 계획은 자녀를 열 명쯤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윤석주 형제 가정에는 아홉 명의 자녀들이 있다. 열 명에서 한 명이 모자라지만 윤석주 형제 가족은 꼭 맞는 퍼즐조각들처럼 화목한 가정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워드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는 장남 상태부터 이제 초등학교가 된 막내 영태까지, 다복하게 모인 이들 아홉 명을 볼 때면 주위에서는 저절로 좋겠다는 소리가 흘러 나온다. 물론 윤석주 형제 가정에 평온한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처럼 일일이 거론하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라'라는 가훈 안에서 일어났기에 이제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런 일들 중 하나. 넷째 미숙을 출산할 때의 일이다. 새벽 2시경 엄마인 이선득 자매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그만 아이가 나와 버렸다. 순찰차의 뒷좌석은 즐지에 수술대가 되었고 윤석주 형제가 미숙을 받았다. 탯줄은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에야 자를 수 있었다.

윤석주 형제 가정의 아홉 자녀들은 서로 돕고 가르친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 논다. 딱히 부모가 참견하지 않아도 큰 아이들은 동생들을 돌보고, 동생들은 오빠와 형, 그리고 누나와 언니를 존경하고 따른다. 그 모든 일들은 윤석주 형제와 이선득 자매의 교육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도록 가르치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배우고 충실하면 그 밖의 일에 대한 이해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뚜렷하고 확고한 믿음을 품고 있다. 윤석주 형제는 말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에 충실하면, 교회도 국가도 발전하고 사회의 여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님의 백성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고, 또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철 형제 부부와 자녀들. 의환, 정환, 혜진, 혜은, 요한.

### 근면·성실·신앙의 기도-이순철 형제 가족

이순철 형제 가정의 가훈은 교리와 성약 103편 36절에 나와 있는 '근면·성실·신앙의 기도'다. 이 형제의 다섯 자녀들은 학교에서 가훈을 조사할 때마다 난감했다고 한다. 친구들로부터 "무슨 그런 이상한 가훈이 있냐?"라는 질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다섯 명의 자녀 중 넷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 티올이 많이 지는 막내 요한은 이제 중학교 일학년이다. 장남인 의환은 결혼을 앞둔 직장인으로, 둘째 정환은 유학생으로, 셋째 혜진은 선교사로, 그리고 넷째 혜은은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느라 뽀뽀이 흩어져 있지만 부모인 이순철 형제와 김명희 자매를 중심으로 한 이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이순철 형제는 처음부터 다섯 명의 자녀를 갖는 게 꿈이었다. 결국 그 꿈을 이루었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만 해도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택시를 잡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순철 형제가 부름 때문에 먼저 교회에 가게 되는 날이면 김명희 자매는 막내를 업고 양손에 한 명씩 잡고 큰 아들을 앞세워 택시를 잡아야 했다. 어떤 날인가는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택시가 잡히자 손살같이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본 택시 기사에게서 "고아원 원장이냐?"는 타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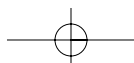
들어야 했다.

주위의 시선이야 어떠한 이순철 형제의 다섯 자녀들은 복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티 없이 밝게 자라났다. 특히 서로 친구처럼 지내면서 우애를 돈독히 했다. 이제 넷은 독신이 되었고 막내는 중학생이지만 서로 상의하고 격려하고 돕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이순철 형제 가정에는 가족 모두가 따라야 하는 복음의 원리 외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 복음 원리에 따라 올바르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 이순철 형제와 김명희 자매의 생각이다.

이순철 형제는 이렇게 간증한다. "다섯 자녀들이 저희 가정에 온 데는 다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아이들이 전세에서부터 우리와 매우 친한 사이였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자녀야말로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

### 나가는 것도 두 배, 들어오는 것도 두 배-이승두 형제 가족

**주** 위 사람들은 이승두 형제와 아내인 신현복 자매를 두고 애국자라고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녀 다섯을 두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신현복 자매는 자녀들의 입을 통해 '대단한 엄마'라는 이야기를 가끔 전해 듣는다. 하지만 이승두 형제와 신현복 자매는 대단한 아빠라고도, 그리고 대단한 엄마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다슬부터 쌍둥이인 다훈과 다경,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생인 다인까지 2년 티올로 태어난 자녀들은 이승두 형제 부부에게는 보물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보물을 지켜보는 것이 결코 -고생이



아니듯,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두 사람에게도 그 일은 기쁨 그 자체다. 특히 다섯 명까지는 계획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것만 같아 그 기쁨은 더 크다.

이승두 형제 가정에서는 일손이 부족할 새가 없다. 역할 배분이 잘 된 자녀들이 가끔 토닥토닥 다투거나 불평을 하면서도 자신의 맡은 바 일을 곧잘 해내기 때문이다. 또한 심심할 새도 없다. 자녀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실새 없이 떠드느라 늘 시끌벅적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많은 만큼 이승두 형제 가정은 항상 다른 집에 비해 지출이 많다.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까지 자녀들의 또래 친구 가정보다 모두 두 배씩 나간다. 하지만 이승두 형제와 신현복 자매는 들어오는 것도 두 배라며 활짝 웃는다. 기쁨도 두 배, 행복도 두 배, 그리고 즐거움도 두 배.

다섯 자녀들은 늘 밝은 모습이다. 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지혜롭고 슬기롭게 친구들과 어울린다. 모두 다 부모의 가르침 덕분이다. 가훈이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항상 말조심하자' 일만큼 이승두 형제와 신현복 자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인과의 조화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두 사람에게 다섯 명의 자녀는 어떤 의미일까? 신현복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이승두 형제 부부와 자녀들. 다슬, 다은, 다훈, 다경, 다인

“저희 가족을 복음 안에서 뭉치게 하고 더욱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저희 부부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입니다. ■



조봉재 형제 부부와 자녀들. 영진, 광진, 규진, 정진, 의진, 두진, 솔진, 담진, 효진, 섬진. 사진에는 영진과 광진이 빠져 있다.

### 자녀들은 스승이다-조봉재 형제 가족

**조**봉재 형제 가족은 색연필이다. 서로 다른 색깔의 색연필 열 두 자루가 모여 한 다스가 되는 것처럼 조봉재 형제 가족도 각기 다른 개성의 열 두 명이 모였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열 명의 자녀들.

조봉재 형제 가족은 방송이나 잡지에 소개되었을 정도로 유명하다. 자녀가 열 명이나 되니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그 관심이 대부분 우호적인 것은 조봉재 형제와 김화순 자매의 교육 아래 바르게 성장한 자녀들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자녀 교육 철학은 뚜렷하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열 명의

자녀들에게는 각자 청소 담당 구역이나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의 역할이 주어졌다. 기본적으로 용돈은 없다. 용돈이 필요하다면 심부름을 하거나 일을 해서

용돈을 벌어야 한다. 컴퓨터에 대한 사용 규칙도 엄격하다. 안식일에는 절대 학교 공부나 숙제를 할 수 없다. 입시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대신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개인적 소양을 지니도록 자녀들을 돕는다. 열 명 중 여덟 명의 자녀가

태권도와 피아노를 배웠다. 그리고 조봉재 형제 부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 모두가 세미나리를 졸업하는 것이다. 언뜻 엄격하게도 느껴지는 부모의 가르침에 열 명의 자녀들은 기꺼이 순종한다. 그리하여 조봉재 형제는 망설임 없이, 자녀들이야말로 부모에게 스승과 같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가르쳐주고, 삶에서 주님처럼 오래 참는 자질을 개발해 주고, 시민으로서 더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부모에게 확실한 동기를 주는 이가 바로 자녀입니다.”

조봉재 형제 가족의 열한 번째 자녀인 예진이는 지금 하늘나라, 주님 곁에 있다. 2007년 3월 6일 가족들과 만난 예진이는 불과 한 하루 만에 다시 영의 세계로 돌아갔다. 가족들은 슬픔에 젖었다. 하지만 복음의 원리와 사랑 안에서 그 슬픔을 이겨냈다. 훗날 김화순 자매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진이가 너무나 순수한 영이어서 단지 육신을 얻을 목적으로 9개월을 엄마의 태중에서 준비하여 하루를 살고 갔다는 느낌이 든다고.

조봉재 형제 가족의 자녀들은 오늘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계명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조봉재 형제와 김화순 자매는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 ■



## 5. 한국 선교부 조직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번 호에는 한국만을 위한 공식적인 교회 조직의 시작을 알린 한국 선교부의 조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한국 선교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김호직 형제 사후에도 교회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다. 3년이 흐르는 동안 회원 수는 1,603명으로 늘어났고 서울 중앙, 서울 서, 서울 동, 서울 동대문, 그리고 부산 지부가 한국 지방부를 이루게 되었다. 봉사하는 선교사의 수도 19명으로 늘어났다. 김호직이라는 한 명의 선량한 영혼이 뿌리내린 이 땅의 복음은 그렇게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

한편, 교회 본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에 새로운 선교부를 조직하기로 한 것이다. 1956년 4월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첫 발을 내딛은 지 7년만이었다.

1962년 5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한국 선교부 조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것은 한국에 있어서도, 전 세계의 교회에 있어서도 무척 뜻 깊은 일이었다. 1950년의 한국전쟁. 그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든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선교사 배출 수는 급감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게 참전한 후기 성도 미군들은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전쟁 통에서 싹튼 복음은 12년 후 선교부를

조직할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그 전까지 한국 지방부는 일본에 본부를 둔 북극동 선교부 소속이었지만 1962년 7월 6일, 한국 선교부의 초대 회장인 게일 이 카 형제 부부가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 선교부의 소속이 되었다.

게일 이 카 회장은 8명의 한국 초기 선교사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결혼한 지 일 년밖에 안 된 그이네스 에이치 카 자매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카 회장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는 중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부름에 기꺼이 순종했다.

그는 정열적인 지도자였다. 항상 많은 열쇠 꾸러미를 허리띠에 차고 현장을 뛰어다녔다. 카 회장이 보여준 적극적이고 활달한 지도력은 한국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한국 선교부가 조직된 이후 한국 교회는 본격적인 발전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카 회장이 가진 개척자적 지도력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걸맞은 것이었다. 그는 청운동 대지 구입, 최초의 교회 표준 건물인 동부 지부 대지 구입과 건축 기공, 대구 지부 교회 부지인 대구 이군사령관 관사 구입 등을 추진했다.

카 회장은 선교사들이 지방부

사무실로 사용하던 삼청동 건물에 선교부 사무실을 꾸미고 7월 12일에는 선교부를 3구역으로 조직했다. 3구역은 서울 서지부와 중앙 지부를 포함하는 서울 서-중앙 구역, 서울 동-동대문 구역, 부산-대구 구역이었다.

카 회장의 지휘 아래 한국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했다. 한국에서 봉사했던 카 회장은 누구보다도 한국 실정에 밝았다. 그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지원했으며, 또한 효과적인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한편, 게일 이 카 회장이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한국의 지부는 다섯 개에서 일곱 개로 늘어났으며 물문경과 찬송가의 번역이 시작되었다.

### 선교부 조직의 의의

선교부는 전임 선교사들을 보살피며,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선교부의 조직은 바로 한국 땅에도 시온의 스테이크가 들어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단순히 회원 수가 늘어나고 선교사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60년 대 당시 여전히 국내의 경제 사정이나 치안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회장단에서 선교부 조직을 결정한 것은 회원들의 높은 표준과 신앙 때문이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신앙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특히 김호직 형제를 존경하며 따랐던 젊은 형제들은 그 자신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봉사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선교부가 조직되면서 한국 역시 교회 본부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교회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복음 전파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였다.

1962년 7월 이후 한국 선교부가 조직되면서 그에 맞는 지도력의 생성도 필요한 일이 되었다. 또한 한국만을 위한 교회 선교 사업의 정책 개발이 추진되어야 했으며 이는 곧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인도할 책임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기성 기독교와의 사이에서 주님의 참된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의무가 더해졌음을 의미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뿐 아니라 대만, 홍콩, 필리핀 등지에서도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바야흐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교회 발전이 시작된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청남들과 함께 하는 가족 역사 사업

**올** 해 2월이었다. 가족 역사 상담자인 나는 스테이크 가족 역사 센터 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PAF(개인 조상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육을 받았다. 그 교육을 받고, 또 교육 받은 내용을 지부 회원들에게 전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중학교 때의 기억이 내내 떠나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 나는 청소년 고문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에는 계보 사업이라 불리던 가족 역사 사업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한자라고는 그야말로 '한 자'도 모르던 나는 쓰는 것이 아니라 따라 그리다시피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쪽 직계 조상의 계보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내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었다.

2월 28일, 지부에서의 교육을 끝내고 회원 각자의 집 컴퓨터에 PAF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때부터 나의 작은 도전이 시작되었다. 청남 회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던 나는 청남들에게 가족 역사 사업을 해 볼 것을 제안했다. 원효, 선호, 준영, 현준, 종범, 그리고 막내인 재민이까지 사랑하는 청남들이 내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보람과 영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인 청남은 준영이와 승영 두 형제였다. 나는 둘에게 PAF 프로그램 다루는 법을 교육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목표를 주고 2주 후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2주를 기다릴 것도 없었다. 중학교 2학년인 준영이야 그렇다 쳐도 초등학교 6학년인 승영이가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던 것도 잠시,



준영이와 승영이는 단 며칠 만에 오백 명이 넘는 조상을 PAF에 입력시켰다. 너무나 놀라웠다. 그리고 청남들의 순수한 열의와 신앙을 몰라봤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청남들이 너도나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예비 청남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각자의 집에서 열심히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청남들은 PAF 프로그램과 씨름했다. 청남들은 금세 천 명이 넘는 조상들을 PAF에 입력했다. 이천 명이 넘는 청남도 있었다. 청남들은 자신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기적이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대부분의 청남들이 족보를 읽을 수 없었고, 한자에 대한 지식 또한 부족했다. 그리고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를 추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방편을 구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해 나갔다. 청남들은 지부의 어른들에게 족보 보는 법을 배웠고, 인터넷을 뒤져 모르는 한자를 찾았다. 출생과 사망연도의 추정은 각자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부의 모든 청남들은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생인 예비 청남들도 열심히다. 나는 이 가족 역사 사업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참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로 인해, 그리고 청남들로 인해 수많은 조상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처음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해 다른 청남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핀 준영이는 이렇게 말한다. 족보를 책꽂이에 그냥 꽂아 두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위한 가족 역사 사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서 후손으로서 기쁘고 뿌듯하다고. 아마 다른 모든 청남들도 마찬가지 마음일 것이다.

나는 이 사업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청소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당장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다. ■

한성재 형제(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 복지의 <sup>5</sup> 기본원리 ABC

## 교육 Education

**교**육은 현세와 내세에 걸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교육이란 일반적인 학교 제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는 모든 것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들은 이 지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18~19)

### 영적인 교육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교회사 시험이나, 또는 물문경에서 누가 무엇을 했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에 대한 쪽지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차원을 넘어 현명함과 지혜를 얻는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중재 기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정기적이고 열성적인 기도, 부지런한 경전 공부,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 다른 이에게 봉사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 그분들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세적인 교육

필멸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아기에서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됩니다. 각 단계마다 우리는 어떤 기술과 지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최선을 다해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각자가 모두 다르듯이, 우리가 배우는 경험 역시 모두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맞는 한 가지 지침은 바로 계시를 통해 온 다음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교육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교육은 단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머지않아 일어날 일, 국내에 있는 일이나 외국에 있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모든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지식을 구하십시오. 겸손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세상적인 공부라 할지라도 공부에 신앙이라는 영적인 면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지적인 역량은 증대됩니다.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두 가지 원리”,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나이, 인종, 성별은 배움의 필요성에 대한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서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해 공부하는 것 외에도, 세상의 학문 또한 필수적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분이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지 않다면, 여건상 필요한 경우가 올 때,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교육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공부하고 배울 때 여러분의 재능은 커질 것 입니다. 가족이 공부할 때 더 잘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을지 모를 만일의 경우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면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내가 얻은 지식을 어떻게 현명함과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자신에게 “오늘 나는 어떻게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자신에게 “내 영적인 배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자신에게 “세상적인 배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부모는 자신에게 “내 자녀가 영적, 현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

## 새로 부름 받은 대전 선교부 회장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대전 선교부의 새로운 회장으로 퍼니스 회장이 봉사하고 있다. 패리튼 회장의 뒤를 이어 봉사하기 시작한 퍼니스 회장과 퍼니스 자매는 다섯 명의 자녀를 둔 부모이자 교회에서 충실히 봉사해온 주님의 일꾼이다.

아이다호 포커텔로에서 태어난 퍼니스 회장은 젊은 시절에 서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 후 와드 청남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 등으로 봉사하며 신앙과 영성을 쌓아나갔다. 퍼니스 회장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 받기 전 유타 주에 있는 회계 법인에서 세무이사로 일했다. 사회적인 부와 명예가 보장된 자리였지만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순종해서 젊은 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인 퍼니스 자매도 함께였다.

퍼니스 자매는 유타 주 로건에서 태어났다. 와드 초등학교와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한 그녀는 와드 청녀 회장단으로도 봉사했다. 또한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으로 봉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대전 선교부 내의 대전, 청주, 수원, 광주, 전주, 순천, 홍성 등의 일곱 개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관리하며 각 지역에서 선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 ■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5명



**김명호 장로**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정환오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어수민 장로**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최혜선 자매**  
광주 스테이크  
목포 와드  
타이완 타이베이  
선교부



**이제현 장로**  
부산 스테이크  
괴정 지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선교부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마산 스테이크**  
사천 지부 지부 회장: 도재왕(전임: 이진만)

**수원 스테이크**  
안성 지부 지부 회장: 오현기(전임: 오세윤)

**안양 스테이크**  
금천2 와드 감독: 이중호(전임: 이문수)

## 기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다음의 기사를 모집 중입니다.

1. 한국 성도의 소리, 2. 함께 나누는 경전 구절, 3. 침례의 물가에서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서 복음의 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회원들을 찾습니다.

기사와 제보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103-1번지 3층 한국 관리 본부 자재관리부  
전건우 형제 앞. 우편번호)100-456

전화 번호: 02-2232-1441 (내선 564)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전건우 형제)